



## 유치원자녀 학자금 월20만원으로 대폭 인상

### 토요근무자 대휴 적극 독려...27일 첫 노사협의회에서 합의

노사는 유치원생 자녀를 둔 사원들에 대한 학자금 보조 상한액을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10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노사는 또 회사 2층에 위치한 사내 체력단련실 활성화를 위해 수건과 목욕품을 상시 비치, 위생적으로 관리하기로 합의했다.

노사는 27일 오후 정재용 위원장과 장영섭 사장 등 노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18대 노조 출범후 첫 노사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 위원장은 노사협의회 기초발언을 통해 "최근 단행된 조직개편이 연합뉴스 발전의 중대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부서간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등 후속 노력을 기울여 해선 안된다"고 지적하고, 사원들의 복지가 회사발전의 원동력인 만큼 유치원생 자녀 학자금 보조액 조정 등 노조측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수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장영섭 사장은 "언론환경의 변화로 사원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잘 알지만 현재는 연합뉴스가 도약하느냐 쇠락하느냐를 가르는 중차대한 시점인 만큼 조금 힘들더라도 다함께 노력하자"면서 "복지문제는 재원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치원 자녀 학자금 문제와 관련, 노

사는 특파원 자녀의 경우 국내 거주 자녀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보조금 상한액을 현행 월 100달러에서 월 200달러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노사가 유치원 자녀 학자금 보조 상한액을 획기적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70명 가량의 사원들(특파원 포함)이 연간 최대 12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됐다.

노사는 사내근로기금의 추가출연 문제와 관련, 회사 경영수지 추정이 가능한 하반기에 적극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사원들의 회사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회사역사 전시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4면의 관련표 참조)

이날 회의에서 회사측은 특파원 확충 및 멀티미디어본부 신설 등에 따라 인력수급계획을 사원들에 알려달라는 노조측의 요구에 대해 소요인력 채용시 노조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뉴스통신진흥회가 조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노사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위성DMB 출현 등 미디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집행부 회의 및 대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노사협의회 노조측 요구안건을 마련했다.



27일 오후 7층회의실에서 열린 노사협의회에서 정재용위원장과 장영섭사장이 회의시작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 이달의 참글상 대상에 강훈상 조합원 상금전액 성매매여성 자활지원단체에 기부

노조 공정보도위원회(간사 권정상)는 지난 21일 이달의 참글상(3월 송고분) 대상에 강훈상 조합원(사회부)의 「경찰, 성매매여성 정신지체 알고도 무시」를 선정했다. 공보위는 또 격려상에는 조계창 조합원(민족뉴스부)의 「日 유골감정팀, 분석오류 가능성 인정」과 윤근영·박성제 조합원(경제부)의 「정부, 예보, 우리금융 스톡옵션 지나쳐」 등 2편을 선정, 발표했다.

이번 참글상 심사에는 지난 2월에 추

천작이 없었던 탓인지 총 5편이 추천돼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향이 펼쳐졌다. 강훈상 조합원은 25일 오후 노조 사무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상금 50만원 전액을 성매매여성 자활 지원 여성단체인 '새움터'에 전액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혀 수상의 의미를 더욱 빛나게 했다.

4월 송고분에 대한 참글상 추천작은 오는 5월 6일까지 노조나 각 공보위원들에게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4면

## “연합 참일꾼상” 신설키로...음지에서 회사발전 위해 일하는 사원 발굴

노조는 제작직 사원들이 송고한 기사를 대상으로 시상하고 있는 '이달의 참글상'과 별도로 사내 모든 사원들을 수상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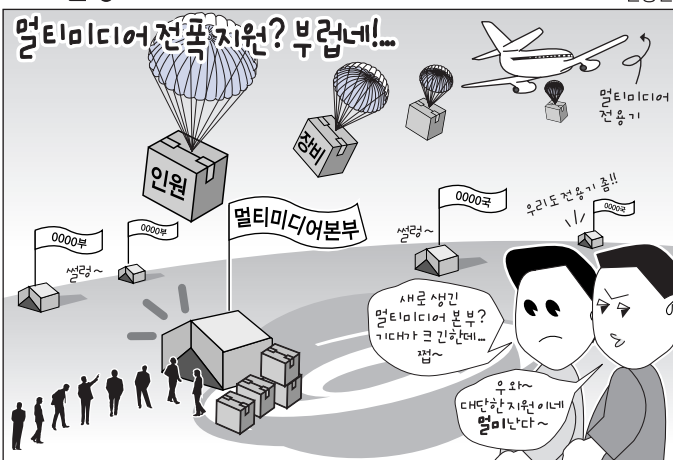
상으로 하는 '연합 참일꾼상'을 신설, 운영키로 했다.

노조는 '연합 참일꾼상'이 자신의 자리에서 남과 다른 노력과 창의성, 성실성을 바탕으로 묵묵히 일하면서 회사 발전에 기여하는 사원들을 격려하는 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노조 공정보도위원회가 매달 심사해 시상하고 있는 '이달의 참글상'이 신문 전채 단수와 관계없이 기사의 의미나 취재과정의 노력, 비판과 견제 의식 등을 기준으로 시상을 하듯 '연합 참일꾼상'도 거창한 성과나 결과물을 드러내지 못했더라도 회사 발전을 위해 음지에서 일하는 조합원 및 사원들을 발굴해 격려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합 참일꾼상'은 사원들의 추천과 노조의 발굴 등을 통해 비정기적으로 시상하게 되며 수상 대상은 노조원으로 국한하지 않고 전 사원이나 소속 부서 및 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해당자가 나올 경우 첫 시상은 5월 말께 이뤄질 예정이다. 사원 및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추천을 기대한다.

### 노보만평



### ● 건강검진 꼭 받으시다 ●

회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오는 5월중 하나로병원에서 사원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일제히 실시합니다. 노사가 지난해 임금협상 과정에서 합의한대로 금년부터는 모든 사원을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니 사원 여러분들은 빠짐없이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회사측이 사원들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를 노동부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회사와 미수검자는 법정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한편 노조는 일부 사원들 사이에서 검진 항목 등에 대한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타사의 사례를 수집하는 한편 검진항목과 검진방법 등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금년말 임금협상 및 단체교섭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조직개편 그후

### ‘全社的공조’가 성공의 열쇠

오랜 진통끝에 단행된 조직개편으로 탄생한 멀티미디어 본부는 “부득이” 차세대 미디어사업 개척의 선봉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

멀티미디어본부는 알려진대로 4개부서로 이뤄져 있다. 부로 승격된 영상취재부는 자체 기자들과 전국 및 해외 기자들이 촬영한 각종 뉴스영상을 총괄 수집해 제작·송고하는게 핵심 업무다. 인터넷부는 각종 뉴스 상품을 네티즌들에게 ‘살짝’ 맛보여 줘 유료 구독으로 유도하는 ‘쇼케이스’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최근 인기 급부상중인 블로그 서비스와 축제사이트의 운영 지원에도 큰 힘을 쏟고 있다.

디지털콘텐츠부는 과거 조사부 시절 기능에서 완전히 탈피, KTX와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문자방송 콘텐츠 제작과 각종 보도자료 취합 및 상품화가 주임무다. 기존의 사진DB부와 연감부를 합친 DB부는 회사가 “뉴스”(News)로 사용한 모든 콘텐츠를 사후에 아카이브로 만들어 “올즈”(Olds)로 종합 정리해 상품화하고 있다.

이런 멀티미디어본부는 새로운 도약을 지향하는 연합뉴스의 최선봉에 서야하는 임무속에 구성원들이 중압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출범한 지 한달도 채 안돼 모든 것이 낯설고 부족하지만 최근에는 KMMB와 영상뉴스 서비스 교환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연합의 영상 콘텐츠가 지상파 DMB의 한 창구를 통해 고정으로 방송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기도 했다.

“이제 막 낯선 신대륙에 상륙한 것처럼 부담스럽고 막막하다”는게 본부원들의 솔직한 심정이다.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갈 길은 분명하지 않지만 앞으로 나아가야만 산다는 것만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

4월 조직개편의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속에서 새로운 임무를 맡은 멀티미디어본부의 안착은 본부만의 노력으로는 결코 불가능하며 다른 제작국, 비제작국 등과의 유기적 공조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全社的 공조’가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멀티미디어 본부 신설과 이번 조직개편의 성패 여부다.



유택형 영상취재부

### 적극적 의견수렴 부족 아쉬움

조직개편과 관련한 원고청탁을 받고 부담스러웠다.

회사의 미래를 그려가는 경영진에 비해 하루하루 살기 바빴고 본사의 사정에도 어두운, 제한된 경험을 가진 지방기자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연합뉴스를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경영진의 고민은 ‘멀티미디어 통신사’ 지향으로 가시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병렬식이던 9개 국을 5개로 통합, 직렬식으로 조직의 효율화를 시도하고 동영상 관련 조직과 인원을 대폭 확대하면서 신규서비스를 창출한게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이 아닌가 싶다. 공조의 폭이 넓어진 구조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본다.

그러나 얘기를 좁혀보면 9개 국 가운데 하나였던 지방국의 소멸은 120명이 넘는 지방 사우들을 다소 어리둥절케했다. 충분한 사전 논의과정이 배제됐기 때문이다. 좌우 날개인 경영진과 노조가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다는게 지방사우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소비자가 우리의 어떤 ‘상품’을 원하는지에 대해 조직개편 이후에야 시장조사하고, (경영 전략상 논의가 필요하고 개편과 직결된 문제는 아니지만) 회사 홈페이지에서 지방뉴스를 전면 삭제했다가 다시 신설하는 등의 혼란은 바람직하지 않은 시행착오였다. 이중,삼중의 취재지시 시스템도 불만을 샀다.

또 지방의 각 지역조직이 지사·팀·본부·지사 등으로 경영진이 바뀔 때마다 명칭을 달리하고 있는 점도 조직의 효율성 여부를 떠나 불만이다. 이는 다시 말해 임기응변식의 변화를 거듭하면서 경쟁력 강화와 회사 발전이라는 조직 개편의 목적에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조직개편과 더불어 우리의 고객인 정부와 정계, 경제계, 언론계,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소비자 조사를 실시, 객관적 데이터를 토대로 언론의 향도로서 위상을 높이는 작업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홍인철 전북지사

### 효율적 운영으로 효과 극대화해야

우선 회사가 4월 1일자로 단행한 대대적인 조직개편은 급변하는 언론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 향후 언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본다.

과거 언론사의 주류인 일간지들이 최근 몇년 인터넷 매체의 급부상과 무가치의 범람 등 언론환경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심각한 위기에 몰리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외부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내부의 개혁, 혁신은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권이나 경제계 등 사회 각 부분에서 몇 년전부터 변화와 개혁이 화두로 등장한 상황에서 언론도 예외일 수는 없다. 또 동종 업계의 심각한 상황을 감안할 때 ‘뭉단장만 하는 정도’의 변화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오히려 회사발전에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조직개편에 ‘창사 이래 최대’라는 수식어가 뒤따르고 있는 점은 일단 환영할 만하다. 특히 일부에서 문제제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 편집국, 경제국, 국제국, 지방국을 편집국으로 일원화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또 외국어뉴스와 멀티미디어 강화도 필수적이었다고 본다.

물론 조직개편이 단행된지 한달도 채 되지 않아 그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하지만 조직개편 이후 단행된 첫 인사를 볼 때 과거의 국(局)간 인사교류도 상당히 많아진 점도 주목할 만하다. 또 과거 각 국 단위로 이뤄지던 편집회의가 편집국 전체 단위로 이뤄지면서 부장 이상 간부들이 전 출입처의 정보를 듣고 업무협의를 할 수 있는 점도 긍정적인 측면으로 본다.

하지만 조직개편으로 인한 새로운 시스템은 이제 출발에 불과한 만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조직을 새롭게 하면서 부여된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 부여라든가, 보고나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 전문성 제고와 인력운용 극대화 등은 지속적으로 검토, 보완해야 할 과제다.



최이락 특신부

### 부서간 정보공유·공조 기대

제작부서를 편집국으로 일원화한 이번 조직개편은 그동안 많은 조합원들의 요구이고 바람이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은 많은 사원들에게 기대를 갖게 한다.

우리는 왜 일원화를 원했었나. 각 국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못하고 자국 이기주의가 회사의 발전과 업무의 발전에 저해요소였기 때문이다.

이번 조직개편은 이 같은 병폐를 해소할 단초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따라서 앞으로 기사의 제작과정에서 각 부서간 협조와 정보공유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그러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듯 이같은 기대는 또 다른 우려를 낳는다. 역으로 효율적 협조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어쩌면 더 큰 좌절을 겪을지도 모른다. 편집국으로의 통합이 최선의 길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할 대목은 각 부서간 협조다. 정보의 공유와 협조를 통해 양질의 기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더욱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위해선 몇몇 거대 부서는 지나친 자기 주장을 삼가야한다.

협조는 일방의 주장으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서의 주장들이 한 군데 집약되고 조율될 때만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번에 신설된 기획취재팀의 역할에도 기대를 걸어본다. 신문의 제작환경이 빠르게 기획중심으로 변화하는 속에서 통신이 광범위한 취재원을 활용해 ‘어젠더’(Agenda)를 선점함으로써 다양한 문제의식을 사회에 던져줘야할 책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기획취재팀의 성과는 결국 각 현장부서의 고민과 정보 속에서 창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 부서간 의사소통과 원활한 협조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

연합뉴스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이 결국 이번 조직개편은 부서간 공조가 얼마만큼 제대로 작동하는가에 성패가 달려 있는 것이다.



장용훈 민족뉴스부





# 노조, 지사방문·간담회 시작 부산·광주전남지사 연쇄 방문

정재용위원장과 김호천 부위원장, 도광환 사무국장 등 노조 집행부는 지난 14일 1박 2일간 일정으로 부산지사를 방문,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노조가 금년도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한 지방 지사·지국 순회 간담회 첫 번째 일정으로 이뤄진 부산지사 간담회에는 휴가중인 이영희 부장을 제외한 신정훈 차장 이하 지사 노조원 전원이 참석했으며, 김원수 부산지사장도 배석했다.

부산지사 인근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겸해 2시간여 동안 이뤄진 간담회에서 부산지사 조합원들은 회사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으며, 일부 노조에 대한 격려 및 충고의 발언도 있었다.

부산지사 조합원들은 대체로 ▲본사와 지방 지사간 컨센서스 부족 ▲본사 관련부서에 대한 이종보고 등 지사사원들의 낭비적 업무 ▲동영상교육 실시 및 축제사이트 제작과정에서 드러난 지방사원들의 의견수렴 절차 부족 및 본사 관련 부서의 즉흥적인 지시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지사 조합원들은 또 최근 단행된 회사의 조직개편에 대해선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논의과정에서 지방 사원들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가 미흡했던 점에 대해선 아쉬움을 피력했다. 특히 조합원들은 이달초 개편된 회사 홈페이지에 지방기사 코너가 사라진 점에 대해서 강력한 불만을 표시했다.

노조 집행부는 부산지사 간담회에 이어 28일부터 1박2일간 광주·전남지사를 방문할 예정이며, 늦어도 8월말까지는 전국 각 지사·지국을 방문, 조합원 및 사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회사측과의 노사협의회 과정 등을 통해 반영할 방침이다.

### 조합 소식

#### ●여성부장 교체

(4월 21일)  
현윤경(스포츠레저부)  
→ 황희경(특신부)



#### ●조합탈퇴

권진택 기획부장(4월20일)  
김장국 산업부장(4월25일)  
정일용 민족뉴스부장(4월25일)

## 노조, 1차 정기대의원대회서 중점추진과제 확정

노조는 지난 8일 본사 7층 회의실에서 18대 노조 첫 대의원대회를 열어 금년도 사업 계획과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는 한편 회사의 조직개편 과정에 대한 노조의 대응과정을 대의원들에게 보고하고 후속대책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본사 각 부서와 지방 각 지사 및 지국의 대의원들은 이날 대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금년도 예산안과 총무부, 쟁의부, 조직부, 교육부, 복지부, 조사부, 선전부, 여성부 등 8개부서별 사업계획안을 상세히 보고받은뒤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대의원들은 집행부가 5대 중점과제로 선정한 ▲뉴스통신진흥회 문제 주력 ▲인사고과제와 임금피크제 문제 적극대응 ▲조합원 및 사원들의 복지향상에 최선 ▲각 지사·지국 순회방문 및 간담회 개최 ▲업무특성이 다른 조

합원들간 단합 증대 등을 추진했다.

또 대의원들은 기타 안건 토의에서 조직개편 문제와 관련, 기존 간부사원들의 활용방안, 통합 편집국장 체제 출범에 따른 지휘체제 및 업무 효율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대의원들은 또 최근 시범실시된 인사고과제 평가 문제에 대해서도 평가항목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일부 지방 대의원들은 회사 홈페이지 개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동영상 취재망 강화에 따른 지방 사진기자들의 증원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날 대의원 대회에는 총 32명의 대의원 가운데 23명(일부 위임자 포함)이 참석했으며, 대회를 마친 뒤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



### 이달의 조합활동

●3월 24일: 회사측이 노조에 조직개편안 내용을 처음으로 급히 알려와 노조는 오전·오후 두차례에 걸쳐 조직개편안의 내용을 전달받고 조직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사내 게시판을 통해 공개할 것을 요구한뒤 곧바로 긴급 집행부회의 열어 심도있게 논의...

●3월 25일: 노조는 이날 오전까지 다양한 경로로 조직개편안에 대한 노조원 및 사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경영진에게 공식적으로 전달...기획취재팀 신설 등 몇가지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뒤 회사측은 두 제작국장에 대한 임면동의 처리를 노조에 요청...노조는 이에 신속하게 투개표위원 선임·투개표 공고 등을 처리하고 두 제작국장에 대한 공개 질의서도 전달...

●3월 28일: 노조는 집행부회의를 열어 두 제작국장에 대한 임면동의 투개표 절차를 점검하고 조직개편안 공식발표 이후 대응방안도 논의...이자리에서 정위원장은 "회사 조직개편안 처리과정에서 내 머리가 다시 개편된 듯하다"며 씩씩한 고충을 토로...

●3월 30일: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전 기자직 사원들을 대상으로 임면동의안 투표가 이뤄져...77%의 투표율에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두 제작국장에 대한 동의절차가 무난하게 통과돼...

●3월 31-4월 1일: 정위원장이 1박2일간의 일정으로 경기도 양주에서 열린 언론노조 중앙집행위원회에 참석...정위원장은 "자꾸 대외활동을 하다보니 언론 노동자들의 고충은 물론 그동안 몰랐던 뉴미디어의 개념이 하나둘씩 이해가 돼 매우 긍정적"이라고...

●4월 6일: 집행부회의 및 공보위회의가 연속으로 열리고 집행부원 일부와 공보위원 일부가 참석한 가운데 함께 저녁식사...참석자 모두의 공통적인 한마디는 "올해 잘 되어야 할텐데"...

●4월 8일: 18대 노조 첫 대의원대회가 본사 7층 회의실에서 열려...주관심사는 조직개편과 인사고과제인듯 했으나 이날 저녁 예정된 인사이동에도 상당한 관심과 이목이 쏠린 듯...

●4월 14일-15일: 정위원장과 김호천 부위원장, 도광환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방문 및 간담회가 열려...노조가 지사 방문 및 간담회 개최를 금년도 주요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한 탓에 긴장과 설렘속에서 간담회가 이어졌는데...폭탄주가 도는 가운데서도 열심히 지사원들의 의견을 적어내려가던 정위원장이 "오늘 거론된 13가지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하자 마주 앉은 김상현 조합원이 "위원장님 제가 메모하기로는 15가지입니다"라고 너스레를 떨자 다함께 폭소...



●4월 18일: 집행부회의를 열어 27일로 예정된 첫 노사협의회 준비에 주력...옥철 쟁의부장은 "지난해 합의된 노사협의회 내용들을 꼼꼼히 점검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 봐야 할 것"이라는 발언에 다들 고개를 끄덕이기도...

●4월 25일: 집행부회의에서 노사협의회와 관련 막바지 준비를 하는 한편 현윤경 여성부장을 대신해 새로 여성부장에 취임한 황희경 조합원의 인사에 큰박수와 격려가 이어져...회의후 이어진 수습기자들과의 저녁식사에서 정위원장 이하 기존 집행부원들은 하나같이 머리속으로 '나도 저런때가 있었는데'라며 회상에 젖기도...

●4월 25일: 전 집행부원이 정보통신국의 협조로 사측에서 추진중인 정보화사업 설명회를 경청...

●4월 27일: 18대 노조 첫 노사협의회가 7층회의실에서 노사 각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여러 주장과 비판 혹은 양보 속에 나름대로 화기애애하면서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기도...





최전선에서

# 야구기자의 비애, '밤낮이 없다'



심재훈  
스포츠레저부

연합뉴스 스포츠레저부 야구담당 기자들은 통신의 속성상 일간지에 비해 두배 이상의 업무량을 소화하고 있다. 타사 체육부 야구기자들의 예를 들면 점심때쯤 출입처에 나와 가판을 막고 저녁 무렵 경기장으로 가는데 통상적이지만 연합의 경우 오전 7시 30분께 출근해 점심 먹기 전까지 메이저리그부터 국내 야구 그리고 자신이 맡고 있는 다른 프로종목과 아마추어 종목까지 두루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다.

특히 최근 2~3년 사이 해외에 진출한 선수들이 급증해 취재망이 전세계로 확대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인의 경우에는 프로농구도 같이 맡고 있어 미국 프로농구(NBA) 기사 등을 점심이후 처리하고 야구장에 도착하면 대략 오후 5시 정도가 된다. 필드에 내려가 감독 및 선수들과 만나 사전 취재를 하다 간단히 저녁을 먹고 야구장 기자실로 올라오면 오후 6시 20분. 그리고 10분 뒤 곧바로 경기가 시작된다.

야구경기가 보통 3시간이면 끝나지만 기약없이 늦어질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운이 좋아 경기가 일찍 끝나면 저녁 9시30분. 경기를 마친 뒤 필드로 내려가 선수들 인터뷰를 마치고 기사를 마무리하면 대략 오후 10시 30분이 되고 지하철을 타고 목동의 집까지 가면 자정을 넘기게 된다.

그나마 경기가 잠실에서 열리는 날은 행복한 편이다. 인천이나 수원에서 경기가 벌어지는 날이면 일을 마친후 대중교통이 끊겨 택시를 타는 경우가 많으며 집에 도착하면 보통 새벽 1시를 훌쩍 넘는다. 더구나 회사 방침상 경기지역은 출장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원,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취재를 많이 맡는 나로서는 교통비 또한 만만치 않은 부담이다.

전날 야구 때문에 늦은 야근을 했다고 해서 다음날 그리 편한 것은 아니다. 야간 경기를 한 뒤에는 다음날 10시까지 출근하지만 점심 먹기 전까지 아침에 밀린 기사를 써야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신이 없는 경우가 많다. 솔직히 야구만 전담한다면 훨씬

편히 일할 수 있겠지만 스포츠레저부원이 13명에 불과해 각 부원이 5~6종목을 담당하고 있어 야구장에서든 판 종목의 기사를 처리할 경우가 많다.

특히 야구기자 뿐 아니라 스포츠레저부원들이 힘든 것은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마음 편히 쉴 수 없다는 점이다. 각종 스포츠가 주말에 많이 열리기 때문에 연합 스포츠레저부는 주 6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주 5일 근무는 아예 논외다.

주말에 하루 나오더라도 평일보다 업무량이 많아 부담감이 많고 더구나 쉬는 날에도 자신이 맡은 종목이 있으면 기사를 처리해야 하므로 사실상 휴일이 없는 셈이다.

최근 들어 스포츠레저부가 지원하는 인력들이 부족 줄어들어 대표적인 기피부서로 났다는 얘기를 들었다.

스포츠레저 관련 기사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회사는 지금부터라도 스포츠레저부에 대한 인원 확충과 처우 개선 등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으로 믿는다.



이달의 참글상

대상 수상자 강훈상 사회부

## “의문과 확인의 성과...수습기자들에 공 돌리고 싶어”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해왔던 참글상을 막상 받아보니 기쁜 마음에 앞서 “과연 내가 참글을 썼는가”라는 의문이 떠오른다. 부끄럽기 짝이 없지만 취재 경위와 소감을 몇자 적어보면 이렇다.

일요일었던 지난 3월 27일 하월곡동 성매매집결지(미아리텍사스) 업소에 화재가 났다. 성매매 여성이 5명이나 사망한 ‘대형화재’였다.

고백하건대 1보는 방송에 물을 먹었다. 나름대로 ‘반카이’ 할 꺼리를 ‘본능적’으로 찾아나섰다. 화재 당일 밝혀진 팩트는 ▲화재 발생 12시간전 해당 업소가 경찰의 단속을 받았다는 점 ▲희생된 여성들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이었다.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생겼다. 전날 단속까지 했는데 왜 희생자의 신원을 곧바로 확인할 수 없었을까. 경찰에 입건까지 된 사건이라면 신원확인도 기본일텐데... 희생자의 신원은 화재 발생 이튿날 오전에야 밝혀졌고 나의 의문은 그 다음날인 29일 한 건의 제보로 풀렸다.

한 여성단체 대표가 “‘구해달라’는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경찰은 걸핍기식 단속을 했고 부상자 중엔 정신지체 장애인도 있었다”고 제보해 온 것이다.

해당 경찰관에 대한 취재결과 ▲화재 전날 단속은 신원확인 초차 하지 않은 어설픈 단속이었으며 ▲정신지체가 포함돼 있었다는 점을 알았지만 대충 넘어갔다는 점 등을 확인해 기사를 작성했다.

그러나 이번 기사는 26기 수습기자들에게 99% 공을 돌리고 싶다. 본인이 출입하는 종로라인에 있던 조

성미, 박성진 후배를 비롯해 장하나 후배가 여성단체와 정신지체 여성을 밀착 마크해 결정적 제보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수습에겐 무엇보다 바랄 수 없는 휴일까지 반납하며 기대 이상의 도움을 주었다.

수습들의 도움으로 경찰과 업주의 유착관계, 사망자 가운데 가출신고된 여성도 있었다는 점 등을 취재해 후속기사를 송고할 수 있었다. 기사가 나가자 관련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는 물론 대통령을 비롯해 여성부가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하기도 했다.

나름대로 이번 기사의 ‘참’을 찾자면 대통령의 특별지시나 참글상 수상이 아니라 수습과 부대끼며 가르쳐야 하는 경찰팀 1진선배로서 어떻게 기사를 통해 우리사회의 문제점을 추적해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지 조금이나마 보여줄 수 있었던 점이라고 생각한다.



25일 열린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재용 위원장, 박성재, 강훈상, 조계창, 권정성 공보위간사.

다시 한 번 ‘친절하지 못한’ 1진 선배를 불평없이 따라온 수습기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 노사협의회 토론회 내용

주요 안건	협의 결과
● 특파원 확충 및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수급계획 사전 고지	● 노조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
● 사내준비와 관련, 회사내 전시공간 마련	● 타사 사례등을 견학 및 연구한 뒤 최대한 반영
● 사내복지기금 출연 및 주택자금 대출조건 완화	● 하반기에 경영사정을 감안해 시행 적극 검토
● 학자금 보조금 가운데 유치원비 보조금 현실화	● 보조금 상한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100% 인상
● 사내 헬스장 시설 및 비치물 보완	● 수건과 기타 목욕용품 충분히 비치 후 위생관리
● 토요일근무자 대휴 이행문제	● 사측 실국장을 통해 대휴 철저히 시행 지시